

환경



<고양이>



<가족나무>



<돼지풀잎벌레>



<족제비싸리>



<창질경이>

공포의 외래 동식물 5종 생태교란 심각

취 잠으라고 들여온 고양이 섬지역 점령 각종 질병 전염 우려

중국산 가족나무 광주 곳곳 잠식... 돼지풀잎벌레에 토종식물 피해

외국에서 구분별하게 들여온 동·식물이 광주·전남 지역 등 전국의 주요 섬과 산을 점령해 생태교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고양이·가족나무·돼지풀잎벌레·족제비싸리·창질경이 등 5종의 외래종 조사연구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일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들쥐 잡거나 애완용으로 도입된 고양이는 제주도에서 속해 있는 섬인 가파도와 비양도에서 개체수가 늘면서 새나 작은 포유류에 피해를 주는 등 생태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양이는 먹이사슬에서 상위포식자에 해당해 다람쥐·토끼 등을 잡아먹고, 행동특성상 사냥을 하기 때문에 포유류나 양서류 등 국내 서식종·보호종들의 개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도서지역 특성상 생선과 견어물 등 먹거리가 풍부해 어획물 등의 훼손이 잇따르고 있으며, 쓰레기통 주변의 먹이를 찾는 습성 탓에 관광객들에게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들고양이는 천적이 될 만한 동물이 없는데다 각종 질병에 감염돼 다른 야생동물에게 전염병을

울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들고양이는 짧은 임신기간(2달)과 왕성한 번식력(3~6마리)으로 도시는 물론 농어촌, 공원지역 등에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이들은 국립공원인 다도도에 700마리 가량이 살고 있고 울악산과 변산반도에 100~200마리, 지리산·내장산·북한산에 50~100마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포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홍도의 경우에도 약 30ha에서 야생 고양이 9마리가 목격, 여전히 면적 3ha 당 1마리의 고양이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철새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홍도에서 새를 먹이로 삼는 야생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또 광주 도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나도는 고양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광주동물보호소 등에 따르면 울도어 지역에서 유기되거나 포획된 들고양이 수는 226마리에 불과하지만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도시를 떠도는 실제 개체 수는 4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양이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주변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민원을 비롯 ▲쓰레기봉투 훼손 ▲고양이 떼 출현 ▲고양이 울음 소리 ▲유기 고양이 주택 내 잠입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유기 고양이를 재빠르게 담벼락을 넘나들어 포획이 쉽지 않은데다, 동물학대를 이유로 불임시술마저 중단해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 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도 고양이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고양이는 사육자 권의를 보호하면서 추가 유입을 막고 포획 등을 통한 개체수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고양이 전용 포획틀을 설치해 붙잡은 뒤 안락사하거나 화살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도입 목적이나 시기가 불분명한 중국 원산의 가족나무도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도로변에 많이 자라고 있어 생태계 교란이 진행되고 있다. 가족나무는 과수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꽃매미의 기주식물(寄主植物) 노릇을 하면서 꽃매미 확산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식물은 기생생물이 의지하고 사는 식물을 말한다. 가족나무가 산지와 하천변 등으로 서식지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 꽃매미 확산 지역에서는 가족나무 어린 개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0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널리 퍼지고 있는 돼지풀잎벌레는 부산 금정산 도로변에서 해바라기, 강원도 양구 하천변에서 들꽃, 광주시 서구 풍암지에서 개골 등에 각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방공사용으로 들여와 심기 시작한 족제비싸리는 도로변과 산지주변, 하천변, 해안 등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번식하면서 주변 식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창질경이도 남부지방 해안과 내륙지역 도로변 등에 퍼지면서 자생식물의 생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존주의보 발령되면 외출 자제하세요”

올해 폭염·열대야 잦아... 오염도 2004년부터 매년 증가

시력 장애·두통 등 발생... 비타민 많은 키위·딸기 도움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광주에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지난 5일과 6일 광양과 순천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 12일에는 서울과 경기, 대구에서도 오존 수치가 올라갔다.

특히 오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시력 장애와 두통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월6일부터 12일까지 한주간 전국의 오존량은 전월 대비 0.004ppm, 전년동월대비 0.003ppm 증가했다. 또한 최근 폭염일수 증가와 자동차 배기가스량의 증가 등에 따라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및 횟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광주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오존주의보가 한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으나, 2004년 1회·2006년 1회 등 2000년대 들어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늘어났다. 또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1995년에는 1일(2회)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7일(52회), 2005년의 경우에는 37일(84회), 2009년에는 33일(60회)로 오존오염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주의보는 3단계의 오존경보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 상태가 3~4시간 이상 지속되면 인체는 기침과 눈의 자극, 숨찬 증상을 느끼게 된다. 또 2주일 정도 지속되면 두통과 숨가쁨, 시력 장애 등을 겪게 된다.

더욱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7대 도시를 대상으로 기상청 기상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원인자료,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도 자료를 이용해 여름철 기온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일사망자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폭염과 오존 속이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대구는 28도, 인천과 광주는 26도 이상일 때, 기온이 상승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

향이었고, 일평균기온은 1도 상승 시 사망률이 전체 연령에서는 0.4~2.6%, 고령자의 경우 0.9~3.3%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시상청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기관지 천식, 호흡기질환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C와 E에는 오존에 자극된 폐에서 일어나는 염증반응을 약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이들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오존에 의한 조직의 손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타민 C와 E가 다량 함유된 식품으로는 키위, 딸기, 고추, 브로콜리 등이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오존 (O₃)



자동차의 매연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강한 햇빛과 만나면서 발생하게 된다. 오존은 독특한 냄새가 있는 기체로 자극성이 강해 인체에 기관지를 비롯하여 신경계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존농도가 시간당 0.1ppm을 넘으면 코, 인후 등을 자극하고, 장시간 노출되면 시력장애와 호흡곤란을 느끼고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오존은 강력한 산화물질로 물에 녹지 않아 호흡 시 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염증과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오존의 영향은 흡연을 하거나 야외운동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노약자·장애인도 국립공원 탐방 쉬워진다

경사도·노면상태 평가, 8월부터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등급제 시행

오는 8월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 국립공원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 등급제가 시행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

든 탐방객이 안전하게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탐방로 등급제는 탐방로 경사도와 노면상태를 평가해 이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탐방객이 자신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탐방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1162km는 대부분 산악지형이고 탐방로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은 국립공원 탐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공단은 탐방로 등급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으며, 8월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2006년부터 산림청이 운영하는 탐방로에 등급을 부여해 이용자로 하여금 신체적 수준에 부합하는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탐방로 등급은 노면 경사, 폭, 장애물 유무, 안내 표지판 등 탐방환경에 따라 1~5등급까지 단계를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도입되는 시설물이 달라진다.

이와 함께 공단은 국립공원별로 2~3개씩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탐방로를 조성할 계

획이다. 북한산 둘레길과 태안해변길과 같이 최근 신설되는 탐방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방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다.

공단은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인정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발족했으며, 최근에는 전국 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정을 대상으로 장애없는 탐방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올해 공단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인관리”라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국립공원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6월 22일 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30% 할인된 가격에... 1588-7941

상무점 하남점. 모든것이 바뀌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극장...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1544-0600

MEGABOX. 1544-0070

그분이 돌아오셨다! 1544-0070

CINUS. 1544-0070